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9. 16.(수)

대미투자 규모가 2,000억불을 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,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9.15. 한겨레는 「한도 2천억달러 이미 넘었는데... 미, 사용후핵연료 처리 ‘파이로’ 투자 요구」 제하 기사에서,
 - 미국이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약 4천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제안하였으며,
 - 대미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이미 2천억달러를 넘어,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

< 산업부 입장 >

- 대미투자 규모가 2,000억불을 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 - 한·미 양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,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
- 한·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,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송지현 (044-203-51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석 (044-203-5171)
	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4-203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정창준 (044-203-5339)